

마을분쟁해결센터 1년…소통 창구 역할 톡톡

충간 소송·누수·주차 문제 갈등

접수 138건 중 115건 해결

주민 주도 ‘마을소통방’도 생겨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주민들의 불화와 대립을 해소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 주민간의 다양한 갈등을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아닌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개소 1년 만에 이웃간 관계 회복은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분쟁해결센터가 주민 주도로 갈등을 해결하는 ‘마을소통방’으로 진화하면서 주민 자율조정의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시, 광주지방법원, 남구, 지역 법률단체(변호사, 법무사, 전남대 로스쿨)들이 협업체 시범으로 남구에 문을 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개소 1년 만에 138건의 다양한 생활분쟁을 접수해 이 가운데 115건을 해결했다.

접수된 생활분쟁은 충간 소송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누수 20건, 주차문제 13건, 애완견 소음 12건, 층간 흡연 11건, 쓰레기 투기 등 기타가 17건이었다. 특히 아파트 내 갈등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화해가 완료된 115건은 화해지원회의를 통한 해결이 27건, 상담·방문 해결이 63건, 당사자 간 화해가 25건이었다. 접수 후 화해율은 85%로 매우 높았다.

실제 남구에 사는 A씨는 지난 3년여 동안 위층의 아이 뛰는 소리에 힘들어 했고,

B씨는 아래층에서 새벽에 막대기로 천장을 치는 ‘보복소음’으로 갈등을 겪다가 센터를 찾았다.

이에 센터는 화해지원회의를 열어 B씨는 아이 교육과 함께 바닥에 매트를 설치하고, A씨는 보복소음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화해했다.

C씨는 위층과의 생활누수 문제로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제시한 피해보상금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액수의 차이가 커서 자체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센터는 화해지원회의를 통해 금액을 절충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센터를 직접 찾아오기를 꺼리거나 부담을 갖는 주민들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소통방’도 설치해 생활갈등의 중재·조정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소통방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평상시에는 마을 사랑방처럼 공동체 교류공간으로 활용하며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는 캠페인, 교류프로그램 등을 연다. 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화해 지원인이 갈등이 있는 이웃들과 소통방에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화해지원회의를 여는 곳으로 벌써 59건을 접수해 해결했다. 소통방의 다양한 갈등예방 활동으로 소통방이 있는 아파트나 마을은 갈등이 제감할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마을소통방은 현재 노대동 ‘콩깍지 송화마을’, 진월동 ‘이웃사촌마을’, 주월2동 ‘오카리나 문화마을’, 백운1동 ‘오순도순 까치마을’ 등 4곳에 개소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개통

3개월만에 이용률 60% 넘어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무정차 요금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개통한 지 3개월 만에 이용률이 60%가 넘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1일 개통한 송암·유덕 요금소의 경우 9월 한 달간 전체 통행량의 각각 63%, 64%가 하이패스를 이용했고, 9월1일 개통한 소태요금소도 하이패스가 설치된 보선을 기준으로 57%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이패스 개통 이후 전년 9월 대비 평균교통량은 1만5284대 늘어나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 16만2330대, 2015년 9월 14만7046대)

이처럼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많은 원인은 요금을 지불하기 편하고 출퇴근 시간 요금소 통과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연료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운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통 초기 단말기 미인식 등 시스템 오류 문제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하이패스 차량의 미납 발생률은 송암요금소의 경우 1.43%로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 주 원인이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인근 한국도로공사 요금소와 비교해볼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주기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정화로 오류 발생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조주환 광주시 도로과장은 “하이패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차량의 지·정체 해소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행량 증가로 연결돼 광주시의 재정 절감 효과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하이패스 불편사항을 집중 점검 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니어 의료산업박람회 폐막

시니어 의료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6 시니어 의료산업박람회’가 지난 9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성매매 예방 포스터 수상작 선정

광주대생 지정원씨 등 15건

광주시와 ㈜광주여성전화는 ‘제5회 전국 성매매 예방 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지난 8일 광주여성전화 교육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국민을 대상으로 ‘인간의 성(性)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성매매 근절 의지 등을 담은 작품 40점이 접수됐다.

양 기관은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창의성, 홍보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

사해 ‘돈으로 양심을 가리지 마세요’(지정원·광주대 2학년), ‘고통은 세일되지 않습니다’(안수은·성덕중 3학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의 인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정수빈·고창여중 3학년) 등 인권상 1명, 평등상 1명, 평화상 2명, 정의상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작품을 선정했다.

인권상을 수상한 지정원 씨는 “성매매 행위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근원적인 진리를 뒤흔드는 반양심적인 행위임을 말하고 싶었다”며 “청소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어른들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

상습침수 농성지하차도

광주시, 연말 개선 공사

광주시가 상습침수시설인 서구 농성지하차도 구조 개선에 들어간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부는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의 하나로,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농성지하차도에 대해 도로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2월부터 96억원(국비 50%)을 투입해 농성지하차도 경사를 낮추는 구조 개선작업을 시작, 지하차도 연장을 기존 215m에서 300m로 늘리고, 8%의 종단 경사를 5~6%로 낮출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청년 목소리 담은 ‘진짜’ 청년정책 만들자

21~22일 청년도시 컨퍼런스

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5·18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청년은 시민이다 - 시혜에서 권리로’를 주제로 ‘청년도시 컨퍼런스’를 열고 청년정책의 담론을 펼친다.

청년도시 컨퍼런스는 사회문제로 확산한 청년문제와 관련, 청년의 자립과 활력을 위한 공동전략과 발전과제를 찾는 자리로 참여주체에 따라 청년 회의, 지방정부 회의, 해외네트워크 회의로 나눠 진행된다.

청년, 시민이라는 키워드로 구성하는 지방정부 회의에서는 ▲생존할 권리 ▲자립할 권리 ▲일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개 주제 세션을 통해 긴급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부터 공동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권리에 기반한 청년정책의 다양한 과제를 모색하게 된다.

주제발표에서 청년담론을 연구하는 박대승(프랑스 툴루즈2대학 박사과정) 씨는 ‘청년, 시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청년의 개념 ▲어떤 주체가 될 것인가 ▲정책 관점의 변화 ▲지금 필요한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범위를 규정된 현재의 청년 연령만으로는 청년층 내부 차이의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취업준비자, 취업자 중 비정규

직, 장기 미취업자, 구직 단념자 등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주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경제주체와 사회주체로 설정하고, 저성장의 경제여건과 이중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구직을 포함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책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막는 연대적 기반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또, 시혜적 관점에 갇혀있는 현재의 청년정책을 권리보장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하고, 행정의 모든 부서 안에 청년담당자를 투입해 청년정책의 범주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 9월 청년업무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5년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 2016년 4차례의 포럼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 주요과제를 도출, 청년의 자립기반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지금의 청년문제는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와 아동·청소년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고리다”며 “내년에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청년당사자와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의 방향을 모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한의사회, 31사단 장병들과 금연상담

광주시 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최근 육군제31보병사단(사단장 권혁신 소장)에서 금연점을 통한 금연진료 및 금연상담을 실시했다.

금연 캠페인은 ‘금연으로 찾은 건강! 내몸튼튼! 나라튼튼!’ 슬로건으로 오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실시중이다.

광주시 한의사회는 참여 병사들에게 금연점 시술과 흡연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참여 병사들은 금

연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며, 다음 진료에는 주변의 동료 병사들에게도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광주한의사회는 매년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일환으로 금연캠페인을 실시해 왔으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한의사회는 병사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아지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텔급, 대형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평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대출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의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무인텔 부지

- 무안군(읍) 성동리 621-1번지
- 대지 530평, 백악관 모텔 옆
- 무인텔 허가 득
- 시세 / 감평가 - 12억
- 매매 - 9억 5천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토지매매, 20억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기한 - 9월 30일까지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